

‘섬김과 나눔의 저금운동 2차 선포식’ 가진 남부원 광주YMCA 사무총장

“사랑으로 채운 저금통 이번엔 아이티 돕습니다”



“환경 재난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아이티 국민을 위해 우리가 모은 저금통은 한줄기의 빛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비록 많은 돈은 아니겠지만 사랑으로 가득 채운 작은 저금통이 아이티 국민에게 잘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강진으로 인해 35만명이 사망한 아이티를 위해 광주YMCA가 나섰다. 회원들에게 사랑의 저금통 1천여개를 나눠줘 모금운동을 시작했으며 광주YMCA 각 지회 및 회원 입구에 저금통을 내놓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가져가 기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남부원(50) 광주YMCA 사무총장은 “일회성에 그치는 모금운동보다 항상 이웃에게 주는 물질 일부를 지속적으로 저금통에 떼어놓는 게 중요하다. 기부문화의 생활화가 필요한 것이다”고 말했다.

광주YMCA는 26일 오후 동구 금남로회관 무

진관에서 ‘섬김과 나눔의 저금운동 2차 선포식’을 열었다. 선포식 후 회원들에게 나눠준 1천여개의 저금통은 한 달간 모금을 진행해 아이티 국민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섬김과 나눔의 저금운동’은 말 그대로 내 이웃과 공동체에 행복을 가져다 주기 위해 나의 것을 조금씩 나누자는 의미다. 지난해 1월에 시작한 1차 선포식때는 북한 반남부심기 지원금으로 200여만원을 모아 북한 그리스도 연맹에 전달했다.

나눔운동을 이끌고 있는 남 총장은 서울 출신으로 줄곧 서울YMCA와 국가청소년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후 지난 2007년 광주YMCA 사무총장으로 부임했다. 이후 3년간 광주에서 지내고 있는 남 총장은 광주시민들의 높은 사회 의식에 대해 자랑스러워 하고 있다. 아이티 모금운동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른 지역 사람들은 광주사람들이 ‘드세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본 이 지역 시민들은 의사 표정을 잘하고 말에서 그치는 게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민주사회에서는 꼭 필요한 모습들이죠. 여기에 나눔과 공동체 의식이 조금 더해진다면 어느 나라 국민과 비교해도 손색없을 겁니다.”

광주YMCA는 세계YMCA에서 진행하는 아이티 돕기 모금운동에도 참여할 예정이며, 광주 4개 기독교단체와 함께 기도회를 열고 모금도 할 계획이다.

남 사무총장은 “이 나눔운동은 피부색과 문화와 국가가 다른 이웃을 위해 앞으로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라며 “우리나라 이웃들을 돕는 봉사 와 함께 지속해 온 세계가 나누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사진=위직림기자 jrwi@kwangju.co.kr

광주지방국세청 아이티돕기 성금 전달



광주지방국세청(임성국 청장·왼쪽에서 두번째)은 26일 직원들이 모은 아이티 긴급구호성금 1천451만7천원을 국제구호개발 NGO인 굿네이버스 광주지부에 전달했다. <굿네이버스 광주지부 제공>

전남도교육청 ‘학교급식방향 설명회’



전남도교육청은 26일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지역교육청, 고등학교, 특수학교의 행정실장과 영양교사 353명을 대상으로 2010학년도 학교급식기본방향 설명회를 개최했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공무원이 5년만에 다섯번째 시집 냈다

이우수 광주시청 사무관



참의 향연) 이 사무관은 “모두가 어떤 가치를 지니고 살아왔는지 항상 돌아보는 삶을 살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아침의 향연이라는 시를 내놓았다”고 말했다.

지난 82년 제7회 셋별문학상 동시 당선으로 문단에 데뷔한 후 88년부터 ‘고향편지’ 등 지금까지 총 5권의 시집을 출간한 이 사무관은 “이 자리를 빌어 등단부터 시집 발간까지 물심양면으로 큰 도움을 주신 아동문학가 김철수 박사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사무관은 시창 내에 문학동우회를 창립해 초대회장을 지냈고, 현재는 한국문인협회 회원,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5년 만에 다섯 번째 시집을 내놓습니다. 사막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주변에 놓여 있는 소중한 것들을 잘 보듬자는 제 소망을 시로 엮었습니다.”

공무원 시인인 광주시청 건설도로과 이우수(54) 사무관이 소중한 친구,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침의 향연 등을 주제로 해, 모두 76편으로 구성된 시집 ‘아침의 향연’(도서출판 셋별)을 최근 출간했다.

어둠 좋고/찬바람 쫓겨/지난날의 아픔/남해 바다에 토해내고, 새벽을 출산하기 위한/온갖 몸부림, 단단한 바위에 멍석 깔고/양상한 가지마다 시간 쫓겨, 분주하게/아침을 준비하는/향일암 언덕, ...찬란함에 도취해/얼어붙은 마음 녹아내리고, 건강한 계획/첫날 새아침/꽃피워 가리리(아

50대 공무원이 늦깎이 수필가 됐다

전남대 도서관 근무 심명섭씨



원이 넘는 나이에 각고의 노력 끝에 어릴 적 꿈작가의 길로 들어선 공무원이 있어 화제다.

주인공은 전남대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심명섭(54)씨.

심씨는 종합 문예지 ‘대한문학’이 공모한 ‘2010년 신인문학상’ 수필부문에 당선되며 등단했다. 이번 공모에서 심씨는 ‘어떤 꿈’ ‘중용의 마음으로’ ‘지푸라기 인생’ 등 5편을 출품, 심사위원들로부터 “세월을 잊게 하는 푸른 꿈의 향기가 풍겨나며, 꿈을 잃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작품”이라는 평을 받았다.

공직생활 30여 년째 접어드는 심씨는 대학시절 대학신문사 기자로 활동하며 글 쓰기를 시작했고, 그동안 공무원 문예대전을 비롯해 각종 문학

작품대회에서 수차례 입상하기도 했다.

심씨는 “그동안 가슴속에 문학에 대한 욕망이 불타오를 때마다 마음에 담고 있는 생각을 글로 옮기고픈 충동이 솟구쳤다”며 “앞으로도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춰두었던 감상을 아름다운 글로 풀어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씨는 이번 등단을 계기로 글 쓰기에 더욱 매진해 앞으로 수필집과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자서전을 낼 계획도 갖고 있다.

장성 출신인 심씨는 순천대와 조선대학교원을 졸업했으며 전남대 도서관 학술정보운영과장으로 재직하며 조선대에 출강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지방변호사회 ‘2010년도 정기총회’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노영대)는 지난 25일 광주변호사회관 6층 회의실에서 정갑주 광주지법원장과 길태기 광주지검장, 변호사회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도 제63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고통받는 아이티에 희망의 빛을”

조선대병원, 1천357만원 성금 전달



조선대병원(병원장 김만우·왼쪽에서 두번째)은 26일 오후 병원장실에서 아이티 지진 피해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국민들에게 써달라며 대한적십자사(회장 김필식·3번째)에 성금 1천357만5천원을 전달했다.

조선대병원은 지난 25일 노사협의 아래 지진으로 고통을 받는 아이티를 돕기 위해 전 직원의 급여에서 1%를 공제해 성금을 마련했다.

이에 앞서 조선대병원은 지난 달에도 불우이웃돕기 성금 1천352만원을 모아 광주시장애인총연합회, 노인복지

시설 등에 기탁했다.

김만우 원장은 “지역민의 관심과 애정 속에 발전한 조선대병원이 지역민에 대한 보답은 물론 조그만 정성이나 마 인도주의 차원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성금을 모았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오재일 전남대 행정대학원장 인사

관현장학재단 이사장에 선출



오재일 전남대 행정대학원장(행정학과 교수)이 최근 (재)관현장학재단 임원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관현장학재단은 1980년 5·18 광주민중항쟁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이었던 오 박관현씨의 뜻을 계승하고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재단이다. 임기는 2013년까지 4년간.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내방

- ◆광주지방보훈청
 - ▲광주지방보훈청 보상과장 유연신
 - ▲광주지방보훈청 복지과장 유점순 ▲목포보훈지청 보훈과장 김남진 ▲목포보훈지청 보상과장 채인수 ▲전주보훈지청 보훈과장 최홍철 ▲전주보훈지청 보상과장 손은솔 ▲익산보훈지청 보훈과장 유인수 ▲국립임실호국원 현충과장 최용재
- ▲최성열(농협 전남본부 농정홍보실장)씨

광주교대 다문화가정 교육확대 간담회



광주교육대학교(총장 박남기)는 26일 오후 교육매체관 시청각실에서 강기정 국회의원과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문화예술교육센터 건립에 따른 ‘다문화가정 교육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화촉

- ▲문정식·김순자씨 아들 형진(전남의대 안과외과)군 오경목(前 전남도청 도로행정담당)·윤정례씨 딸 수민(전남대 의대 소아청소년과 의사)양=30일(토) 낮 12시 양동 금호웨딩의전당 3층 노블레스홀
- ▲진동선·김정희씨 막내 관용군 이특수·공효승씨 장녀 인숙양=30일(토) 낮 12시50분 예별루선웨딩컨벤션 2층(라벤더홀)
- ▲김태영씨(미래새한강정평가법인 대표) 장남 환철(송의중 교사)군 나도팔씨(전남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장녀 성미(송의고 교사)양=30일(토) 낮 12시30분 조선컨벤션웨딩 3층 컨벤션홀.

동창·동문회

- ▲칠칠회 모임(회장 김창호)=29일(금) 오후 5시30분 미송식당. 062-223-6322, 010-6455-6296.
- ▲진영회(회장) 하세 광주화수회(회장 하대회) 정기총회=30일(토) 오전 11시 남구 진월동 흥부가식당. 062-675-1254, 010-3607-3369.
-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부부 갈등·가족갈등·체류·국적취득 등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로 인해 긴급보호가 필요

- 할 때 자국어로 상담 및 보호시설 연계가 가능한 기관, 경찰, 병원 보호 시설 및 유관기관들이 요청하면 현장에서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통역을 통한 긴급지원서비스함. (광주센터 상담시간: 평일 오전 9시~ 오후 6시) 062-366-1366, 367-1577, 368-1577.
- ▲광주종합사회복지관 아동가족 상담센터 무료상담=아동심리적 발달·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미술치료, 언어치료, 자녀양육상담. 062-264-4370, 5308.
- ▲오치종합사회복지관 이주여성 한국사회 적응력 향상 무료 교육=주요, 웃음요육, 푸드아트테라피, 매 주 월·수요일 오전, 선착순 20명. 062-267-3700.
- ▲자비선원 명상 무료 지도=학생, 주부, 직장인, 마음의 평화를 원하시는 분. 062-228-7701.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장

- ▲광주시 동구 전문봉사단육성 교육생 모집=25일(월)~29일(금)까지 모집분야는 ‘생활속의 침술’ ‘풍선아트’, 전문기술 습득 후 봉사활동 가능한 시민 30명 선착순 모집. 동구청 보건소 2층 동구자원봉사센터(062-228-1365)
- ▲광주시 동구 경로당 전문봉사단 모집=25일(월)~29일(금)까지 모집분야는 경로당에서 진행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건강증진·여가프로그램 진행가능한 자. 동구청 보건소 2층 동구자원봉사센터(062-228-1365)
- ▲광주대 풍수지리학 무료 공개강의=2월20일(토) 오후 2~5시 광

- 주대 호심기념 도서관 5층, 양택·음택·수택·입향관 등 이문과 현상 제시(책자 무료 제공) 011-609-8117.
- ▲국립나주병원 자원봉사자 모집=2주 1회 정기적으로 목록 도우미 및 이미용 서비스, 정서지원 및 함께 운동하기, 노래 및 요가교실, 스포츠댄스 및 에어로빅, 지원자격은 대학생 및 졸업생. 문의 061-330-4169.
- ▲아름다운경매 동호회 모집=기초부터 학습, 물권, 채권, 권리분석, 점유권, 유증권, 법정지상권, 공동분서, 현장답사 직강인 스터디를 통한 체계적교육. 011-607-4614.
- ▲사랑의 학교 문해 한글과정 자원봉사(여)교사 및 학생 모집=성인 한글 기초·중급·고급반, 중급검정 고시반(월·화), 한문, 기초영어반 모집. 교육시간 월~금 오전9시~12시30분, 오후 2시~4시. 062-951-5397, 011-9456-6037.
- ▲전국아파트연합회 아파트 경비·설비원 모집=광주시내 아파트

- 에 근무할 60~65세 경비원 수시로 모집. 062-236-0032.
- ▲김경자 국악학원 국악지도사 모집=국비지원 어린이 국악지도사 양성 모집. 011-617-7713.
- ▲조상구씨 별세 남철·동연·남주·해정·성희씨 부친상=발인 27일(수)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31-8902.
- ▲김화영씨 별세 최병호·재명·순화·숙희·정희씨 모친상=발인 27일(수) 학동 금호장례식장 301호. 062-227-4000.
- ▲전주경씨 별세 김지수·병태·인수·병오·병익씨 모친상 윤관중(전남경찰청 차장)씨 모친상=발인 28일(목) 순천 성가톨릭병원 장례식장 특실. 061-720-2145.
- ▲이종석씨 별세 김규·현희·주희씨 부친상=발인 28일(목)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062-231-8903.

두번 슬로게 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 프리드

신진국영 주택시설회사

현대종합상조

가임폰트 1566-4499